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김인규 장흥군수

"권역별 체험관광지 조성"

"군민 모두의 혁신역량을 한데 결집시켜 장흥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군민과 향우, 공직자가 하나 되어 뛰겠습니다"

김인규 장흥군수는 올해가 실질적인 민선 4기 군정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해인 만큼 생활 주변의 쉬운 일부터 친환경 운동을 실천하자는 '푸른장흥 운동'을 범 군민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군수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역실정을 감안해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을 서두르는 한편 노인건강 허브보건사업을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노인 일자리 대폭 늘려

또 여성과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국공립 아동보육시설과 청소년수련관, 댐 주변에 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광주~장흥간 4차선 및 직선화도로 등 연계도로망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도 77호선 선형변경, 회진~용산간 해안일주도로, 회진~신상간 통수운하시설 등의 조기 완공도 서두를 방침이다.

김군수는 장흥을 권역별로 나눠 체험관광 중심지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올해 핵심 사업으로 꼽았다.

남부지역의 수문 장재도 지구와 정남진 우산도 공원지구를 관광지로 개발하고 인근 천관산 문학공원 확장과 월송 조선백자 도요지 복원, 해양낚시공원 조성 등을 통해 체험관광의 메카로 만들 계획이다.

천관산 문학공원 확장

중부지역은 토요시장을 확대·개편, 특화된 재래시장으로 육성하고 억불산 천문과학관, 우드랜드 목재문화 체험장, 탐진강 수변녹지 등을 생활체육 공원화해 체류형 휴식공원으로 조성한다.

북부지역에는 장흥 댐을 중심으로 한 물 테마 파크와 야생녹차 생태체험 마을, 지렁이 생태학습장 등을 한데 묶는 체험탐방 관광코스를 개발해 그린투어의 명소로 개발할 예정이다.

장흥군은 지난해 '생약초 한방특구'로 지정 받았다. 김군수는 올해 생약초 재배단지를 확대하고 한방산업진흥원과 천연자원연구소 유치 및 생약초 가공공장 건립을 통해 장흥을 한방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각오를 다지고 있다.

장흥군은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친환경농업대상을 수상한 여세를 몰아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사업 지원을 늘려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자리를 굳히겠다는 것이 김군수의 구상이다.

생약초 재배단지 확대

김군수는 "경쟁력 있는 신규시책을 개발하고 의사결정과 정책집행 과정에 군민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확대해 새해에는 보다 역동적인 군정을 펼치겠다"며 "군민 모두가 스스로 지역 발전의 주체가 되고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전남도, 읍마다 '생활 숲' 조성

올해 136억 투입 국공유지 23곳에 상록수 등 가로수 5만여그루 심어

전남도내 읍단위 이상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여유와 건강을 선물할 푸른 숲이 만들어진다.

도는 읍단위 이상 지역의 국·공유지 가운데 방치돼 있는 자투리 땅에 나무를 심어 '생활 숲'을 집중 조성키로했다. 도는 올해 1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생활 숲 23개소(46억원)를 만들고 가로수 5만 6천그루(90억원)를 심을 계획이다.

특히 새로 만드는 숲은 기존의 가로수와 연결해 조성함으로써 인위적인 시설물 위주로 조성되는 공원 형태에서 벗어나 최대한 자연미를 살리는 산림형태의 숲으로 꾸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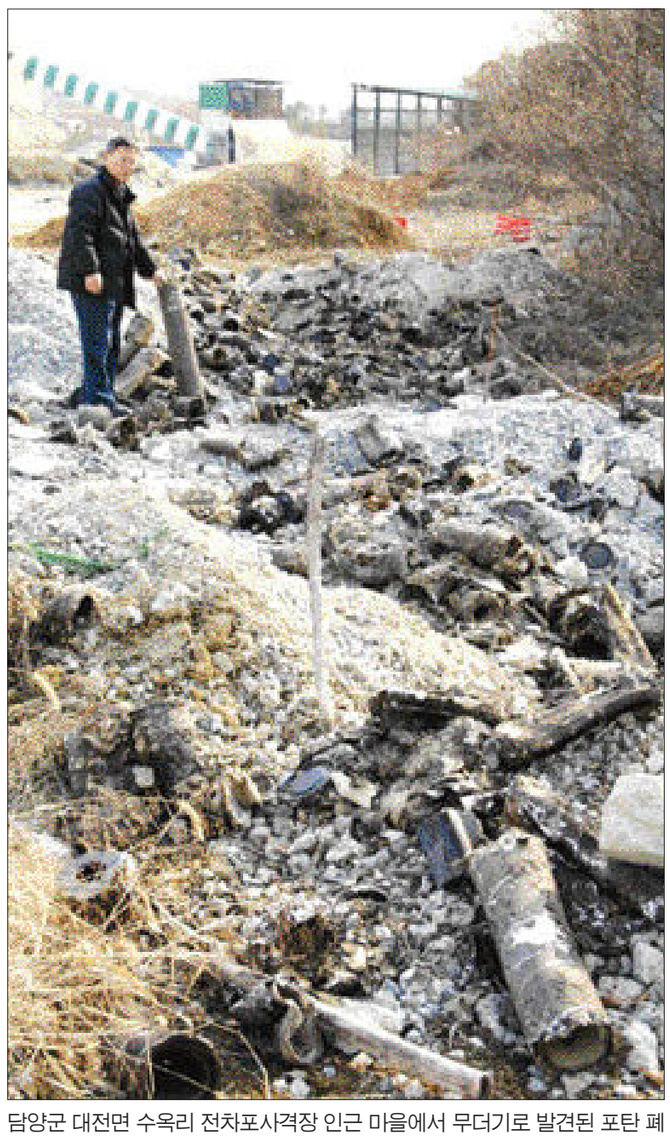
또 주거지역의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풀과 꽃도 함께 심을 계획이다.

생활숲 조성 계획에 따라 함께 심는 가로수는 후박, 가시 등 상록수(2만 2천그루)를 주종으로 해 사시사철 녹색 경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배롱, 이팝 등 향토수종(3만 4천그루)도 심어 지역특색을 살리는 동시에 지역에 연계되는 국·지방도는 테마가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수종을 단일화하게 된다.

한편 도는 '가로경관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오는 2010년까지 가로수 조성에 339억원(891㎞, 11만 1천그루), 도시숲 조성에 182억원(71개소) 등 모두 52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담양군 대전면 수옥리 전차포사격장 인근 마을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포탄 폐기물들.

포탄 폐기물 무더기 방치

담양 대전면 전차포사격장 인근 마을

군 부대 경계 마을에서 포탄 폐기물들이 무더기로 발견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담양 대전면 수옥리 전차포사격장 인근에는 수백여개의 포탄 폐기물 들이 방치돼 있다.

특히 최근 한 업체가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면서 땅을 팠다가 폐기물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등 포탄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토양 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다.

부대 측은 이 폐기물들이 2001년 이전에 버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 부터는 전문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대는 지난해 4천800여만원을 들여 245t의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2001년 이전 불법투기된 폐기물의 양은 추산조차 힘든 실정이다.

부대 관계자는 "수년 전 버려진 폐기물들을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있다"며 "버려진 폐기물 들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함평 나비·곤충엑스포 성공 개최 설명회

조직위, 국내외 기자 등 초청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가 본격화됐다. (재)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는 17일 국내외 기자들과 여행사 관계자 등 50여명을 초청, 서울 롯데호텔 벨뷰룸에서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엑스포 홍보 영상물 상영에 이어 엑스포 소개 및 설명,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에게 리후렛과 CD 등 홍보물이 배포됐다. 특히 이날 (재)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사)한국일반여행협회(KATA)와 관광협력 협약을 맺고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나비축제 10년째이자 개군 600주년을 맞아 열리는 엑스포는 '미래를 만드는 작은 세계'라는 주제로 함평읍 내교리 일대 21만평 부지에서 2008년 4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45일 동안 개최된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할아버지·할머니 시원하시죠"

진도 보은원, 물리치료 봉사 호응

사단법인 진도보은원(대표이사 한 정순)이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농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진도보은원 노인복지센터는 자원봉사자 20여명과 함께 지난해 말부터 진도군 의신면 옥대리 경로당 등 지역 경로당을 돌며 물리치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진도읍 남산리 경로당을 방문, 2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물리치료기를 이용한 봉사활동을 벌였다. 〈사진〉

남산리 경로당 박양기(73세)씨는 "병원을 찾을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물리치료 봉사를 받고나니 너무 고맙다"고 감격해했다.

진도보은원은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동시에 재가 노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수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새얼굴/

"농업시설 현대화 힘쓸 터"

이 강 오 농촌공사 구례지사장

"지금까지 쌓아 온 모든 경험을 살려 지역농업발전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강오(53) 신임 한국농촌공사 구례지사장은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의 현대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구례 출신인 이 지사장은 농촌지도사로 16년간 근무하다 지난 1990년 농어촌진흥공사에 입사, 본사 서무과장, 화웅·시화사업단 용지과장, 구례지사 농지은행팀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박영화씨와 2녀가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